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1. 거듭난 사람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내일 새벽 '94 홍해작전 개전

-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

해마다 갖는 특별새벽기도회「홍해작전」이 올해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는 주제 하에 내일 새벽 5시에 개전한다. 홍해작전 기간은 현충일과 6.25사변 기념일이 있는 6월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기간이며, 아울러 성도 각자의 영적인 회개 운동의 기간이자, 교회의 오늘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보다 기쁘시게 하기위한 일들을 모색해 보는 기간이다. 또한 한국교회를 키워 온 새벽기도회를 배우고 실천하고 확산해 가기 위해 전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힘을 합쳐 기도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홍해작전 기간동안 새벽기도회는 평상시보다 30분 앞당겨 5시부터 드리게 된다.

'94 홍해작전 기도제목

1. 경건, 사랑, 절제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개인과 민족의 죄를 참회하오니 용서하시고 고치소서
3. 전쟁, 기아, 죄악으로 죽어가는 이들에게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4. 북한 동포의 신앙 자유와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이루게 하소서
5. 성경적 윤리관과 가치관이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게 하소서
6.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들을 새롭게 하소서
7.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94 홍해작전 행동강령

1. 새벽기도회에 열심히 참여한다.
2. 1인 1명 이상 전도한다.
3.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부터 깨어져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

'94 홍해작전 전야예배

오늘 저녁 찬양예배에, 참모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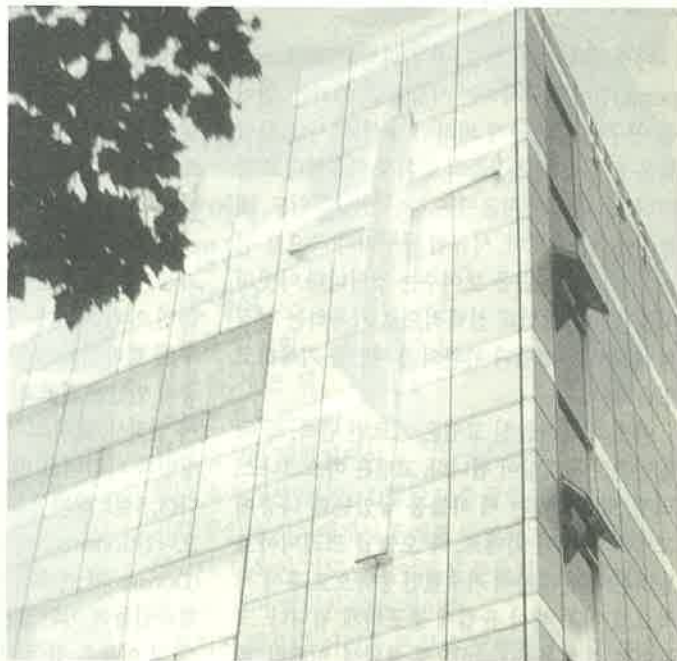
오늘 저녁 찬양예배는 내일의 진군을 알리는 홍해작전 전야예배로 드린다. 사령관 이종윤 목사가 14일의 행진을 이끌어 갈 참모장 이영세 장로와 총진행을 맡은 김주아·유순화 전도사, 그리고 7개 부서의 참모를 임명하는 순서와 충성을 다해 행군을 이끌어갈 것을 다짐하는 참모들의 찬양이 있을 예정이다.

동원 주력교구 및 책임부서

서로를 독려하고 새벽기도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 요일별로 주력교구를 정하였다. 새벽이라 교통편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교구별로 「사랑의 차 함께 타기 운동」을 펴도록 한다.

홍해작전 기간 중에는 새벽기도회 뿐만 아니라 불기둥, 구름기둥 모임을 교회학교별 혹은 각 지회별로 갖고 친교와 간담회, 각 교회학교와 전도회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부서를 위한 기도회를 갖는다. 특별히 수요일, II부 예배후에 가지는 다락방장 공부는 이종윤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다락방장 특별훈련을 하기로 했다.

일자	주력교구	불기둥, 구름기둥 모임
6일(월)	1, 2교구	
7일(화)	3, 4교구	오후8시 ~ 10시 / 탁아부, 유치부, 요한, 베드로, 바울 1·2지회
8일(수)	5, 6교구	다락방장 훈련
9일(목)	7, 8교구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 마리아, 루디아 1·2지회
10일(금)	9, 10교구	오후8시 ~ 10시 / 유년부, 초등부, 요한, 베드로, 바울 3·4지회
11일(토)	11, 12교구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 마리아, 루디아 3·4지회
12일(주일)	총동원의 날	
13일(월)	1, 2교구	오후8시 ~ 10시 / 중등부, 고등부, 요한, 베드로, 바울 5·6지회
14일(화)	3, 4교구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 마리아, 루디아 5·6지회
15일(수)	5, 6교구	다락방장 훈련
16일(목)	7, 8교구	오후8시 ~ 10시 / 청년부, 대학부, 사랑부, 새가족부 모세전도회
17일(금)	9, 10교구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 에스더 1·2·3·4·5·6지회
18일(토)	11, 12교구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 한나여전도회
12일(주일)	총동원의 날	



십자가 복음을 위해 우리교회 예배당 정면에 십자가를 세웠다. 지나며 십자가를 보는 이들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94 여름 전교인 가족수련회 장소확정

- 7월 25일(월) ~ 28일(목), 삼척산업대학에서 -

전교인 가족수련회 및 교회학교 수련회를 예년과 마찬가지로 강원도 삼척산업대학에서 가지게 되었다. 7월 25일부터 3박 4일간 전교인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며 영육간의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련회를 위해 시간을 확보하고 마음을 준비하자.

창세기 강해



야벳의 후예들

(창세기 10장 1 ~ 5절)

이 중 윤 (목사·당회장)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의 언어와 종족,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나누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어서 그 중 함은 저주를 받았고 셈은 '셈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울 만큼의 영적인 축복을,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미 공부했습니다. 야벳의 후예들이 어떻게 퍼져나왔는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년 3월 14일자 타임지(TIME誌)는 지금까지의 인류학자와 문화사학자들의 학설을 종합하고 분석해서 인류기원의 학설을 두가지로 대분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 첫째는,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시작했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에텐동산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중동지방 어느 지역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모두 화석을 가지고 연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본문에서 여러 나라의 백성으로 나뉘고 각기 다른 종족과 방언과 나라들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 과학을 넘어서는 놀라운 해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민족의 기원과 이동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인 증거

야벳의 후예는 인도, 유럽피안(Indo, Euro-peans)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로, 아리안 언어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모두 같은 조상들의 언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언어가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인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서유럽 동구라과 쪽으로 점점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벳의 아들은 일곱명인데 선택적으로 기록하는 성경의 족보에는 고멜과 아완의 후예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벳의 맏아들인 고멜은 게르만 민족, 즉 독일민족의 후조상이 됩니다. 고멜은 아스그나스, 리밋, 도갈마라는 세 아들을 낳았는데 나중에 고멜의 가족이 키메르, 즉 오늘날 크리미아로 알려진 흑해 북쪽에 거주했던 종족으로 후에 서쪽으로 이동 해서 유럽에 분포하게 됩니다. 그들이 소위 고을족(Gaul)으로 불란서, 이태리, 벨기에, 하란, 스위스, 독일 일대에 거주하게 됩니다. 또한 고멜의 알파벳을 이루는 G. M. R. 음이 유사하게 사용된 지명이나 종족은 대개 그의 후

손들이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을랜드, 콤벌랜드, 움부리아, 아일랜드, 웨일즈의 조상인 킴리(Cymry)족 모두가 다 고멜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멜의 아들 아스그나스는 팔레스타인 북부 지방에 있는 아스가니우스(Ascanius)호수의 이름을 보아도 그가 거기에 거주했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조세프스는 야벳의 다른 아들 리밋은 파팔라고니아인의 조상으로 '유럽'이라는 단어가 바로 '리밋'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도갈마는 알마니안의 조상으로 성경에 두번이나 언급되어 있고(겔27:14, 38:6), 후에 터어키족을 형성합니다. 즉, '도갈마'라는 음에서 '터어키'가 나온 것입니다.

야벳의 아들 중에 마곡과 두발, 메섹은 북극 지역, 러시아인들로 여겨집니다. 마곡은 '곡의 영역', 즉 '곡'이라는 백성이 살던 지역을 뜻하는 말로 곡의 백성들은 수구디안으로서 러시아 지역에 거주합니다. 에스겔서 38장 2-3절을 보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여..."라는 구절에서 마곡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전쟁이 마곡과의 대결임을 보이는데 마곡의 후예들이란 러시아인으로 추정됩니다.

터어키 북쪽 본토 지역에는 두발과 메섹족이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유럽인들의 절반 가량이 유럽사람이 되었고 나머지가 마곡의 후예가 된 것입니다.

후에 인도로 이주해 간 아리아인들도 야벳 가문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야벳의 일곱째 아들인 아완은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완은 후에 헬라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중해 연안을 끼고 퍼져나갔는데 그의 아들들 중에 엘리스, 달시스, 깃뎀, 도다남이 후에 종족과 방언과 나라대로 바닷가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4, 5절). 헬라인들은 헬레네스(Hellenes), 이오니안(Ionians), 아케니안(Acheneans), 도리안(Dorians)의 족속들에 속합니다. 그러나 고대 헬라인들은 아완 또는 이오니안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름은 결국 아완에서 나온 말이며 헬라인은 헬리스에서 온 변형어입니다. '달시스'는 요나가 도망을 치던 다시스로 오늘날 서바나에 있는 타테소스(Tartesos)로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깃뎀'은 구브로, '도다남'은 론강변, 즉 헬라 북부지역을 지칭한다고 했습니다. 야벳의 막내 아들 '디라스'는 후일에 이태리인들의 조상이 되는데 다른 백성들과 더불어 로마 제국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2. 얻을 수 있는 교훈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한 번 예언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야벳의 후예들을 창대케 하셨습니다. 따라서 야벳은 육신적으로 창대해져서 전 세계를 점령할만큼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영적 축복을 받은셈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러시아가 복음화될 것인가?'하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다'라고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야벳의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야벳 족속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고 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안에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순례자 컬럼 ✧

천국시민생활운동

이천년대를 향한 천국시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정성껏 해야 할 것으로 믿고 실천한다.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천국시민의 제일차적인 도리인 것이다.

아울러 자신을 향하여는 힘을 다해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술과 담배 마약과 같은 망국적인 것들을 추방하고 과소비 퇴폐풍조를 배격하며 시간과 물질, 말과 행동을 절제할 수 있을 때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는 성숙한 교회상과 가치관이 확립되어 이 시대를 이끄는 향도자적 사명을 감당케 될 것이다.

천국시민은 나보다 남을 존중히 여기고 창천과 격려를 생활화하며 준법정신을 발휘하여 사회질서를 바로 세우고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다.

총체적 난국을 당한 작금의 세태를 한탄만 하지 말고 교회 한모퉁이에서부터 이같은 천국시민 생활운동을 확산시켜가야 한다.

국내외 목회자의 영적 각성을 위한 제 5학기 목회자세미나, 제5차 김치 신학세미나 수료식

목회자세미나에 참석한 전국의 목회자와 김치세미나에 참석한 러시아 목회자가 한자리에

한국교회의 갱신은 강단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모인 전국 목회자들을 위한 제5학기 세미나가 종강을 하던 지난 5월 30 일(월), YMCA 대강당에 제5차 김치세미나에 참가한 러시아 목회자들이 방문하였다.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은 하나님 의 종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내 교회, 내 민족만을 보는 좁은 시각을 벗어나 다른 교회, 다른 민족을 향해 관심을 가지며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며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개가 동시에 움직여야 제구실하는 젓가락처럼

수료식에서 우리 교유의 음식인 김치(=김치?)를 연상할 수 있도록 수저 한 세트씩을 선물했다. 젓가락은 두개가 동시에 움직여야 제구실하듯 모두가 협력하되 십자가만을 위해 일하자는 의미를 담은 선물이었다.

러시아에는 지금 당장 많은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개교회보다는 공동창구를 통한 협력을 하기로 약속했다. 우리는 러시아에 초교파적 통일찬송가 제작과 교회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등을 위한 공동위원회가 조직되는대로 이 일에 실제적인 진행을 돕기로 한 것이다.

“어둔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힘써 일하자”. 수료식이 거행된 본당 1층에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퍼진 마지막 찬송이었다.



처음으로 무릎 꿇고 소리내어 기도해 보았다는 러시아 목회자들

양수리 기도원을 찾아 간 김치세미나 참가자들과 우리 교회의 성도 들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다. 입식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경험은 생소한 것이었다. 통성기도 역시 그러했다. 서로의 언어는 달랐으나 둘, 셋씩 기도 짝을 지어 동일하게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소리가 산을 메웠다.

러시아 목회자들은 우리에게 고마운 마음을 달리 표현할 길 없다며 모든 것을 묶어 우리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한 기도의 동역자를 얻은 것이며, 아울러 러시아 복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과제도 얻은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 지는 뒤 편에는 많은 분들의 땀과 정성이 뒷받침되어 있다. 목회자세미나가 진행된 10주 동안과 김치세미나 기간 동안 봉사자들에게서 은혜를 받았다는 목회자들도 많았다. 더욱이 기도로 참여하신 분들의 수고 덕분에 이 모든 일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보이지 않으나 이러한 손길과 정성이 우리 교회에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을 가능케 함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봉사의 귀중히 여기고 봉사자들을 격려하며 동참하는 일을 잊지 말자.



우리 이웃 신문포 보기 -

『임마누엘 집』을 다녀와서

- 안 상미 (중등부 회장)-

지난 주일(5월 29일)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 85명이 거여동에 있는 「임마누엘 집」을 방문했다.

「임마누엘 집」은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무의탁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며 장애인 자녀와 고아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 1983년도에 설립되었다. 현재 72명의 무의탁 장애인이 함께 숙식을 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임마누엘 집」의 설립자 김정식 원장님도 어린시절 소아마비를 앓으셔서 지금도 목발로 보행하는 장애인이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임마누엘 집」 가족들 사이 사이에 앉았다. 처음에는 두렵고 서먹서먹했지만 조금씩 그런 마음이 사라져 갔다. 「임마누엘 집」 가족들이 온 몸으로 힘을 다해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며 우리도 힘껏 찬양을 드렸다. 권상석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정병무 장로님의 기도로 시작한 예배는 우리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과 김정식 원장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이어져 갔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돈이 없고 공부할 줄 못한다하더라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생활하면 가치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우리는 모두 '아멘'하고 외쳤다. 목사님께서서는 명예, 권력,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강조하셨다. 우리는 그곳 식구들보다 건강하다. 그러나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들같이 건강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고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준비해 간 간식과 우리들이 정성껏 모은 헌금을 전달하니 너무도 기뻐했다. 중등부 부회장이 감사와 격려의 말을 하고 우리 모두가 악수도 했다. 몸을 일으키는 일조차 어려운 그들과 악수를 나눌 때 그곳 식구들의 얼굴에 밝은 웃음이 번져갔다. 올해 5월의 「임마누엘 집」 방문자로는 우리가 처음이라서 우리들과 우리 서울교회 그리고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 세세하게 기도해 주셨고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됨을 느끼며 기뻐할 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는 장애인을 위한 교회와 보호소가 500여 곳이 있다고 한다. 대부분이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작은 사랑의 손길로 도우면 조금은 더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많은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임마누엘 집」

(서울시 송파구 거여 2동 251 - 40 ☎ 407 - 0067, 449 - 6956)

■ 목회자 동정 ■

· 이종윤 목사는 지난 6월 3일(금)에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배우기 위해 방한한 인도 목회자 20명에게 「교회갱신원리」를 강의했다.

광야의
소리

갇가지 위기 앞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갇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너무 급하게 기울어 버리는 작금의 사회변동에 우리는 놀랄 뿐 아니라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다. 이유없는 원망의 소리들이 도처에서 들려오고 윤리도, 도덕도, 상하좌우도 모두 무너져 버린 무서운 때를 만난 것 같다. 한편에서는 성질상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를 놓고 극단적 대립 또는 분열을 하는 사례가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바로의 궁에 여호와와 밤이 찾아오듯 심판의 때가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는 듯하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물을 구하는 일 뿐이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벌거벗은 마음으로 엎드렸듯이 건너야만 할 홍해 앞에서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작전을 벌일 때가 된 것이다. 우리가 넘고 건너야 할 홍해가 무엇인지를 교회적 차원에서도 찾아야 할 것이며,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도 확인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 때가 된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94 홍해작전의 출발을 알리는 호각은 이미 불어졌다. 서울교회 가족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군화를 신고, 의의 홍배를 두르고 믿음의 방패를 들며,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고, 손에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자. 이 행군에서 낙오자가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깨우자.



↑ 몸을 일으키기가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기쁨이 넘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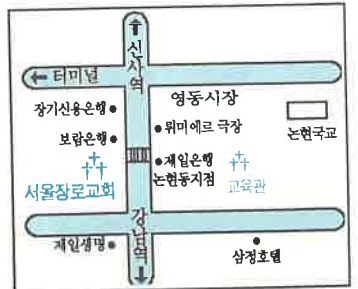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I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I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I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 기도회	오후 9시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 교회위치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홍해작전을 통해
개인과 가정, 교회와 민족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하소서
2. 김치세미나에 참석했던 목회자들이
러시아 복음화의 불꽃이 되게 하소서!
3. 우리 교회 각 부서와 기관들이 조화롭게 운영되게 하소서